

'21년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스크립트

(2021. 4. 23 / IR그룹)

경영실적 1. 연결손익 종합 – 1 page

안녕하십니까, 국제금융실장 입니다.

당사 2021년 1분기 잠정실적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결손익 종합입니다.

당사는 1분기에 매출액은 분기 최대인 7조 870억원,
영업이익 1,269억원, 순이익 92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1분기 매출은 철강재 및 철강 원료 등 철강본부의 판매 호조와
곡물가, 원자재 가격 상승의 효과로
전분기 대비 25.6%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트레이딩 호조와 함께 인도네시아 팜오일, 우즈벡 면방 등
주요 투자법인의 이익이 증가하여 전분기 대비 45% 증가하였고,

순이익은 손상 이슈를 최소화하며 929억원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에서 연결손익 상세를 좀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실적 2. 연결손익 상세 - 2 page

1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1조 4,457억원이 증가했으며,
특히 철강 거래량이 44% 증가하여 969만톤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이익 1,269억원은
본사 트레이딩, 무역법인 등에서 590억원을 기록하였고,
투자법인은 인도네시아 팜, 우즈벡 면방 등 주요 법인의 이익 증가로
전분기 대비 225억원이 증가한, 37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미얀마 가스전은 분기 513억 입방피트를 판매하며 견조한 생산 및 판매를 보였지만,
개발2기 투자 일정 조정으로 투자비 회수가 약 2개 분기 순연되어
전분기 대비 360억원 감소한 304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외 손익으로는 금융손익은 -119억원, 관계기업 손익은 +91억원 이었으며,
미얀마육상가스관, 수단제약, KOREA LNG 에서 지분법이익이 발생한 반면
암바토비 광산은 가동중단으로 72억원의 지분법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내역으로는 무역법인의 이익환입 등으로 33억원의 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영실적 3. 사업부별 실적 및 전망 – 3 page

다음은 **주요 사업부별 실적 및 전망**입니다.

철강사업은 지난해 그룹사 수출채널 통합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 제철소향 철강수요 개선으로 포스코재의 자동차강판, 열연강판 등 철강재와 포스코 해외생산기지향 철광원료, 냉연강판 등의 판매가 확대되어 분기 4조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에 국내 철강판매 및 온라인플랫폼 거래도 확대되어 535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었습니다.

철강수요는 미국, 중국 등의 경기 회복 노력에 따라 상반기까지 지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환경에 따라서 당사는 건조한 판매를 기반으로 부실 거래를 축소하며 이익 최대화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에너지사업은 1분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스전 판매량은 하루 5.7억 입방피트를 상회하며 건조함을 보이고 있으나, 작년 코로나 팬데믹 이슈로 개발 2단계 프로젝트의 투자일정을 조정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투자비 회수 일정도 순연되어, 3분기까지는 투자비 회수 비율이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얀마 이슈에도 불구하고 생산운영 및 개발 2, 3단계 프로젝트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가스판매단가는 지난 4분기 이후 반등하여 연내 점진적인 상승이 예상됩니다.

경영실적 3. 사업부별 실적 및 전망 – 4 page

식량소재본부는 옥수수, 대두 등 곡물가의 상승과 PTA, 구리, 알루미늄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견조한 매출을 보였으며, 영업이익 역시 흑자전환하였습니다.

식량사업은 인니팜농장의 생산과 판매 호조에 힘입어 207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었으며, 곡물거래량 역시 지난 분기에 이어 200만톤 이상의 호조를 보였습니다.

다만, 트레이딩의 경우 곡물가격의 지나친 급등과 다가올 계절적 비수기로 2분기 거래량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하반기 신곡 출하와 함께 다시 거래량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사업은 구동모터코아 판매를 중심으로 7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으며, 2분기 이후 판매량이 증가하며 이익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역법인은 철강 및 소재, 식량 트레이딩 활성화에 힘입어 흑자전환하여 영업이익 90억원을 기록하였으며,

투자법인은 주요 자회사의 이익 증가로 총 375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팜오일 사업과 구동모터코아 사업은 성장 로드맵을 통해 좀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장 로드맵 1. 핵심사업 성과 및 현황 – 5 page

5페이지 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식량사업의 4대부문인 본사의 트레이딩, 인도네시아 팜농장, 우크라이나 곡물터미널, 미얀마 RPC에서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1분기 133억원에서 56% 상승한 20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회사 식량사업의 주축인 인도네시아 팜오일 사업은 지난해 안정적인 생산체제를 갖추어 1분기 생산량이 5만3천톤까지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PT.BIA의 CPO 생산능력은 연간 15.8만톤이며, 올해는 14.5만톤의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팜 생산량 증가에 따라, 올해 2분기에는 3기 CPO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공장이 완공되는 22년 말에는 연간 생산능력이 25만톤까지 증가할 계획입니다.

철강사업은 지난해 미국, 멕시코, 중국지역의 수출채널 통합을 완료하여 1분기 부터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스코재 수출량과 함께 해외에 있는 그룹사 생산기지향 원료 및 소재 판매 증가로 1분기 판매량이 전년동기 대비 62% 상승한 969만톤이었고 영업이익도 95% 증가한 53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E-Sales 플랫폼은 향후 다양한 철강 관련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성장 로드맵 2. 친환경차 부품 사업 현황 – 6 page

다음은 6페이지의 **친환경차 부품 사업의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사는 다가올 친환경차 시장의 성장에 대응하여,
자회사인 SPS와 모빌리티 사업실이 함께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핵심인 구동모터코아 사업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분기 구동모터코아 판매량은 22만대였으며, '21년 연간 판매계획은
약 115만대 입니다. 이는 작년 판매량 66만대 대비 73% 증가된 숫자이며,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생산능력을 증설 중입니다.

수주량은 '25년 이후 공급분 220만대를 추가하여
총 1,250만대이며, 4백여만대의 추가 수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생산능력은 60만대를 추가하여, 약 130만대의 생산 Capa를 보유할
계획이며, 내년에도 약 70만대의 생산능력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해외생산기지는 중국을 시작으로 '25년까지 미주, 유럽 지역에 총 200만대의
생산거점을 세우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 모빌리티 사업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회사 SPS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친환경차 부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STS사업실은 배터리 모듈케이스를 국내 대형 2차전지 제조업체에 공급 중이며,
배터리팩 경량화를 위해 공동 기술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경량화 기술을 선도하여, 배터리팩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성장 로드맵 2. 친환경차 부품 사업 현황 – 6 page

또한 TMC사업실은 모터코아의 적층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산업용 고속모터를 개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국내 유망기업과 함께 서보모터를 개발 중이며, 국내대기업 자동화 공장라인용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본사의 **모빌리티 사업실**은 트레이딩 역량을 발휘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친환경차 부품시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의 기술력과 원가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체와 함께 모터 제조에 사용되는 마그넷을 유럽계 모터제조사향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모터코아가 차량 1대당 1개 이상이 필요하듯 모터 마그넷 역시 친환경차 성장과 함께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밖에 하프샤프트, 감속기, BLDC모터, 수소연료전지분리막 등 친환경차에 사용되는 다양한 부품을 프로모션하고 있으며, 충전 인프라구축을 위한 EV고속 충전기를 전세계향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상, 회사의 핵심사업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분기 실적발표를 마치겠습니다.